



3면

새만큼 SOC 예산 원상 복원 '한목소리'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음 11월 7일) 제3408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8일 오전 11시 30분 전북대학교 대학 본부 앞에서 양오봉 총장과 보직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을 기념하는 식수행사가 열렸다. 이날 심은 나무는 한 줄기에서 같은 크기의 여러 가지가 뻗어 나오는 소나무인 '반송(盤松)'이다.

‘플래그십 대학’ 도약 꿈을 품고

전북대, '지역과 상생 발전' 글로벌대학30 선정 기념 식수 한 줄기서 같은 크기로 여러가지 뻗어 나오는 '반송' 심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 기념 식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은 나무는 한 줄기에서 같은 크기의 여러 가지가 뻗어 나오는 소나무인 '반송(盤松)'이다. 전북대는 이 나무처럼 지역과의 상

생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도약하고, 학생 중심 대학과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 사업 선정은 그 시작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내 가금농장 16개소 등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북도, 가용 가능 소독차량 동원 가금농가 주변 소독 한파 대비 '위험주의보' 발령...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전북도가 지난 6일 익산에서 최초 발생 이후 18일 현재 가금농장 16개소와 야생조류 2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소독차량 80대에서 100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한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도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주변 소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0개소)이 집중됨에 따라 산란계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산란계 농장(54개소)에는 각 시·군 축산부서 담당자를 소독책임관으로 1대1로 지정(54명)해 농장별 소독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산란계 5만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23개소에 대해서는 축산차량과 출입자의 통제와 소독을 위하여 농장초소를 설치하고 농장내 분뇨와 계란 반출을 줄여 외부로부터 오염 유입을 최소화 했다. 한편 부안 육용오리에 발생한 건은

동물위생시험소 정기검사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한 만큼 오리농가 정밀검사 주기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사전 예방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오리농가 소속 계열회사 관리에 매일 농장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오리 병아리를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는 가축방역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소독 시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 시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농장에 2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을 전파한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농장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며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문화매개인력 처우 개선 필요”

전북연구원, 2012년·올해 근로실태조사 비교 분석
문화기관 직원 일반 행정직 채용... 전문성 인정 못받아
전문직종으로 정체성 확립, 전문인력 활동 환경 마련
표준 보수체계 구축·복지후생 공통 적용 등 제안

전북지역의 지역문화매개인력 203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10여년 동안의 근로환경 변화를 살펴본 뒤, 처우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지역문화매개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수행한 장세길 연구위원과 신지원 전문연구원이 2023년 근로실태조사와 2012년(전주시 문화매개인력 154명) 조사를 비교한 결과, 평균 월급여총액은 52.5%가 증가하였고, 평균 총근로시간은 6.4%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평균 월급여총액은 262만1,211원, 평균 총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조사됐다. 2012년 조사에서는 월급여총액과 총근로시간에서 유사 직종에 비해 열악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총급여총액 변화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총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진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이 명시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에 시행되면서 인력의 법제화에 따라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세길 연구위원과 신지원 전문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해소됐다

는 점을 꼽았다. 2012년 조사에서는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 아래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조사에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나타났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학력별(특히 대학원) 임금이 직업의 전문성 인정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데, 전북지역 문화매개인력(대학원졸 19.2%) 간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은 직업의 전문성이 처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문화 전문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또한 문화매개인력의 직업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함을 뒷받침한다고 두 연구자는 설명했다. 지역의 문화기관 채용 과정을 보면 문화·예술 전공자보다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던 고시생이 합격할 가능

성이 크며, 실제 신규 채용에서 문화·예술 전공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예가 많다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연구자는 전문직종으로서 지역문화매개인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부 과제로 △전문 직업군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설, △문화직렬 신설, △경력 및 전문성 인증 시스템 구축, △관련 법·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전문인력 활동 환경 마련을 위해 보수의 현실화와 복지후생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세부 과제로, △표준 보수체계 구축, △전북형 고용 및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행사 대행의 위탁방식 개선, △복지후생의 공통 적용과 전문성 함양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이 연구는 올해 전북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됐으며, 조사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 기준인 조사년도 6월을 적용했다. /김재훈 기자

이제, 김제!

김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기부대상
주소지가 김제가 아닌, 김제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법인 불가)

기부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공제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이내

김제시 답례품
- 쌀, 잡곡, 소고기 등 농축산물 15종
- 누룽지, 떡, 약과 등 가공식품 18종
- 김제사랑상품권 등 7종

김제사랑 마음은 + 더하고
우리사회 행복은 * 곱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마음이 달는 고향, 김제 기부로 마음을 전하세요

김제시 총무과
T. 063-540-3304 / 3305